

4골 폭발 '화끈한 화력쇼' 전남 연패 탈출

줄리안 등 잇단 골...안산 4-0 대파 K리그1에선 3경기 무려 17골 올 시즌 하루 최다 득점 갱신

전남드래곤즈가 시원한 골퍼레이드로 연패를 끊었다.

전남은 지난 4일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20 K리그2 안산그리너스와의 9라운드 홈경기에서 4-0으로 승리했다.

개막 후 6경기 연속 무패 (2승 4무)를 달렸던 전남은 7라운드 대전 원정에서 시즌 첫패(0-2)를 기록했고, 앞선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도 1-2로 지면서 시즌 첫 연패에 빠졌다.

하지만 지난 1일 경남FC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둔 전남은 그 분위기를 이어 다시 한번 화력쇼를 펼치며 정규리그 연패에서 벗어났다.

줄리안의 오른발이 공세의 시작점이었다.

전반 12분 윌리엄 오르발로 밀어준 공을 잡은 줄리안이 킥퍼 이희성이 나온 것을 보고 살짝 오른발로 공을 터치하면서 골대를 갈랐다.

줄리안은 후반 8분 다시 한번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며 골세리머니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디오 판독 끝에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다.

팽팽한 흐름이 전개되던 후반 28분 전남에 '행운의 골'이 기록됐다.

안산 수비수 김민호가 머리로 윌리엄 오르발의 크로스를 견어내려 했지만, 공은 그대로 안산의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

2-0으로 흐름을 가져온 전남은 교체카드로 대승을 완성했다. 전경준 감독이 후반 35분 이종호를 빼고 추정호를 투입했다.

추정호는 그라운드에 오르자마자 상대 진영 왼쪽에서 반대쪽에 있던 이후권에게 패스를 했다. 이후권이 그대로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쐐기골을 만들었다.

후반 45분에도 추정호가 도움을 기록했다. 왼쪽에서 중앙으로 짧은 패스를 했고, 달려오던 임찬술에 맞고 골이 들어갔다. 판정이 나왔다.

전남은 K리그2 최소실점(6실점) 팀의 면모를 보이며 4-0 승리를 완성했다.

한편 이날 K리그1 3경기에서 무려 17골이 터지면서 올 시즌 하루 최다 득점 기록이 경신됐다. 기존 기록은 지난 6월 13일 4경기에서 나온 12골이다.

수원삼성과 FC 서울의 '슈퍼매치'에서 두 팀이 3골씩 주고받았고, 부산아이파크는 강원 FC와의 경기에서 4-2로 승리를 거뒀다.

울산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도 5골이 나왔다. 울산이 주니오의 헤트트릭을 앞세워 4-1 승리를 장식했다. 인천은 무고사의 골로 체면치레는 했지만 개막 후 10경기에서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한편 울산은 한 경기 한 팀 득점·도움 헤트트릭이라는 진기한 기록을 작성했다.

주니오가 세 골을 터트렸고, 김인성은 세 차례 도움을 기록하면서 K리그1 통산 5번째, 프로축구 통산 13번째 한 경기 한 팀 득점·도움 헤트트릭 기록이 만들어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4일 안산과의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한 전남 줄리안이 경기 4-0 승리로 끝난 뒤 밝은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손흥민, 리그 10호골 정조준

내일 '악연의 팀' 에버턴 전 4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 도전

손흥민(토트넘·사진)이 '악연의 팀'이 된 에버턴을 상대로 4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에 도전한다.

토트넘은 7일 오전 4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에버턴과 2019-2020 시즌 프리미어리그(EPL) 33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의 지상과제였던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 획득은 거의 '물거품'이 됐다.

토트넘은 지난 32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1-3 패배를 당해 승점 45점으로 9위에 머무

르고 있다. 6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안정권인 4위 첼시와는 승점 12점,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는 승점 10점 차다.

이제 손흥민이 남은 시즌 거둘 수 있는 성과는 '개인 기록' 뿐이다. 손흥민은 올 시즌 공식전 16골, 정규리그 9골을 기록 중이다.

지난 2월 애스턴 빌라와의 26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폭발한 뒤 다섯 달 가까이 골맛을 보지 못했다.

애스턴 빌라전에서 입을 팔 골절 부상, 코로나19로 인한 리그 중단 등으로 그라운드에 설 기회가 없었다. 리그가 재개한 뒤에는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쳤다.

오랜 골 침묵을 깨고 에버턴전에서 득점한다면 손흥민은 4시즌 연속 EPL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

손흥민은 앞서 정규리그에서 2016-2017시즌

14골, 2017-2018시즌 12골, 2018-2019시즌 12골을 넣은 바 있다. 또 셰필드전에서 해리 케인의 만회골을 도와 시즌 도움을 9개로 늘린 손흥민은 두 자릿수 도움에도 하나 남겨뒀다.

손흥민이 에버턴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골 기대감을 더한다. 에버턴을 상대로 통산 5경기에 출전한 손흥민은 최근 3경기에서 3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특히 2018년 12월 24일 경기에서는 2골 1도움으로 6-2 대승을 이끌었다.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4일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도움 하나를 올렸으나 상대 선수 안드레 고메스가 크게 다치는 빌미를 제공했다.

손흥민의 태클로 넘어진 고메스가 다른 토트넘 선수와 충돌하며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 당시 받았던 레드카드도 황소 끝에 취소됐지만 손흥민은 한동안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예상보다 일찍 부상에서 복귀한 고메스는 리그 재개 뒤 3경기 연속 폴타임을 뛰었다. 이번 토트넘전에도 변화없이 선발 출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남자배구 KB손보 케이터 코로나19 양성 판정



남자프로배구 KB손해보험 외국인 선수 노우모리 케이터(19-말라·사진)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KB손보 배구단은 5일 "케이터가 2일 입국 후 받은 코로나19 검체 반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입국 직후 해당 선수와 접촉한 배구단 사무국 직원 등 3명에 대해 즉각 자가격리 조치하고,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선수 숙소를 즉시 방역 조치 후 임시 폐쇄했다"고 밝혔다.

케이터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KB손보는 5월 15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배구연맹(KOVO) 남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케이터를 지명했다.

케이터는 2일 세르비아에서 입국했고, 배구단 선수들이 모두 휴가를 떠난 숙소에서 혼자 머물며 자가격리 중이었다.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입국자 검역 절차에 따라 3일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았고, 4일 오전 양성 판정이 나왔다.

/연합뉴스

바이에른 뮌헨 20번째 DFB 포칼 정상에

결승서 레버쿠젠 4-2 격파 2년 연속 시즌 더블 달성

독일 프로축구 최강 클럽 바이에른 뮌헨이 통산 20번째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정상에 오르며 2년 연속 시즌 더블(2관왕)도 달성했다.

뮌헨은 5일 오전 독일 베를린의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바이어 레버쿠젠과 치른 2019-2020시즌 DFB 포칼 결승에서 4-2로 완승했다.

전반 다비드 알라바와 세르주 나브리의 연속골로 기선을 제압한 뮌헨은 후반에 폴란드 출신 골잡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2골을 보태 쐐기를 박았다.

이로써 DFB 포칼 최다 우승팀인 뮌헨은 두 시즌 연속이자 통산 20번째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

렸다.

아울러 올해 정규리그인 분데스리가에서 8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한 뮌헨은 지난 시즌에 이어 또다시 2관왕에 올랐다.

무관중으로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뮌헨은 전반 16분 페널티아크에서 얻은 프리킥을 알라바가 왼발로 잡아 차 선제골을 뽑았다.

전반 24분에는 요주아 키미히의 패스를 받은 나브리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슛으로 추가골을 넣었다.

뮌헨은 올 시즌 트레블(3관왕) 기회도 남아 있다.

다음 달 포르투갈 리스본에 모여 잔여 일정을 치를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뮌헨은 첼시(잉글랜드)와 16강 2차전을 벌인다. 뮌헨은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첼시를 3-0으로 완파했다.

/연합뉴스



5일 독일 베를린의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2019-2020시즌 DFB 포칼 결승에서 레버쿠젠을 꺾고 우승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살아있다
2관	#살아있다
3관	소리꾼, 침입자
4관	#살아있다, 다크 나이트
5관	은위드: 단 하루의 기적, 위대한 쇼맨, 인베이전 2020, 해피 디 데이
6관	다시 태어나도 우리,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벌새, 우리들, 인생 후르츠
9관	결백, 사라진 시간
7관 씨네카를	#살아있다, 소리꾼, 침입자
8관 씨네카를	#살아있다, 코드 8, 시, 나리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주원의 방랑예찬
2020. 7. 22(수) 11: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오월바람

2020. 7. 29(수) ~ 30(목)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동화음악회

2020. 8. 25(화) 11:00, 14: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